

국내 간호학 학술지 투고규정의 연구윤리 기준 분석*

정인숙*, 엄영린**, 김금순***

1. 서론

임상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인간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연구는 인간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함에 따라 과학성과 함께 윤리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치료방법(예: 유전자 치료요법, 줄기세포이식 등) 및 의약품과 관련된 임상연구는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잘못 이용될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며 따라서 이러한 임상연구의 윤리성 확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간호연구도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호학계는 한국간호과학회를 대표로 하여 분야별 학회 8개 단체

그리고 관련학회가 20여 학회가 넘지만 현재 간호 관련 학회에서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이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미약하다. 또한 간호대학은 단과대학인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150여 개 학교가 있고 간호과학연구소도 30개가 넘어서고 있지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거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록 학부 또는 석, 박사과정에 간호연구방법론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윤리적 측면보다는 과학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가능한 이유로는 간호학연구의 경우 실험연구에 비해 조사연구 또는 관찰연구가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¹⁾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간호실무 또는 간호연구 등 간호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연구 또는 관찰연구에서도 개인정보 또는 유전정보와 같은 기밀정보의 누설은 연구대상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 이 논문은 "2007년 대학·학회 연구윤리 활동 지원(2007-연구윤리004)"과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정인숙,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051-240-7763. jeongis@pusan.ac.kr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 최경숙, 송미순, 황애란, 김경희, 정명실, 신성례, 김남초,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 창간호에서 1999년도까지. 대한간호학회지 2000 : 30(5) : 1207-1218.

경제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의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연구의 정확성 및 윤리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투고규정에 윤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고규정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규정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헬싱키선언²⁾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이 선언에 제시된 원칙을 따르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출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년 전 국내 의학 관련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분석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그 당시 간호학 관련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윤리기준이 제시된 경우는 전무하였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호학 관련 학술잡지의 투고규정에 인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준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관련 잡지의 투고규정에 제시된 윤리적 기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투고규정은 가장 최신의 자료(2007년 버전을 이용하였으며, 2007년 버전이 없는 경우에는 2006년 버전을 활용하였다. 간호학 관련잡지는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10종)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팀 회의를 통해 간호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학술지(9종)를 선정하여 총 19개의 학술지로 하였다(표 1). 가장 최근에 개정된 투고규정을 수집하기 위하여, 각 학술지의 최근호에 수록된 투고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였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간호학 관련 학술지 및 분석에 활용된 투고규정의 개정연도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학술지 개정연도		기타 학술지	개정연도
1. 대한간호학회지	2006	1. 임상간호연구	2006
2. Asian Nursing Research	2007	2. 모자보건학회지	2006
3. 성인간호학회지	2006	3.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7
4. 아동간호학회지	2006	4. 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7
5. 기본간호학회지	2007	5. 간호교육학회지	2007
6. 정신간호학회지	2007	6. 산업간호학회지	2007
7.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7	7. 재활간호학회지	2007
8.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6	8. 종양간호학회지	2007
9. 간호행정학회지	2006	9. 노인간호학회지	2007
10. 기초간호자연과학학회지	2006		

2)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J Int Bioethique 2004 ; 15(1) : 124-129.

3) 정인숙, 백정미, 신상구, 장인진. 국내 의학 관련잡지 및 논문집의 투고규정에 나타난 윤리기준. 임상약리학회지 1998 ; 6(2) : 165-173.

2. 연구도구 : 윤리적 기준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한 윤리적 기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헬싱키선언이었다. 헬싱키선언은 1953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료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 사항을 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제18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⁴⁾ 최초의 국제적 연구윤리 강령으로서 특히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헬싱키선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은 각 나라와 연구 기관에서 연구윤리 및 심의 지침을 만드는 주요 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중 몇 가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는데, 투고규정에 헬싱키선언 준수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도 헬싱키선언의 주요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연구의 계획 및 시행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독립적 윤리위원회의 승인 원칙, B-13), 연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고(프라이버시와 기밀보장 원칙, B-21), 연구대상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의 원칙, B-22). 또한 연구자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위원회와 잠재적 연구 참여자에게 밝혀야 하며, 간행되는 논문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이해상충공시 원칙, B-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고규정에 제시된 윤리기준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헬

싱키선언 준수여부, 독립된 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 또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여부, 연구대상자(서면)동의여부, 연구대상자의 비밀 또는 익명성 보장여부, 그리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대한 공시여부 등이었다. 국내의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윤리위원회, 기관윤리위원회(IRB)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상자 동의의 경우 서면동의와 함께 구두동의도 모두 포함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서면동의인지 구두동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동의라는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편, 기존의 Amdur & Biddle의 연구,⁵⁾ 정인숙 등의 연구⁶⁾에서는 국제 의학연구편집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생의학 학술지 논문투고 공통규정(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UR)을 또 다른 윤리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고규정에 공통규정(UR)을 제시하는 경우 논문 작성 및 투고를 위한 형식적인 측면의 기준인지, 아니면 윤리적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윤리기준에서 제외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술지의 투고규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개 중 11개(57.9%)이었으며,

4)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JAMA 2000 ; 284(23) : 3043-3045. ;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J Int Bioethique 2004 ; 15(1) : 124-129.

5) Amdur RJ & Biddle C.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and Publication of Human Research Results, JAMA 1997 ; 277(11) : 909-914.

6) 정인숙 등. 앞의 책. 1998.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지 및 산하 학회 학술지의 경우 10개 중 7개(70.0%), 기타 학술지의 경우 9개 중 4개(44.4%)이었다. 아동간호학회지는 취약연구대상자

(vulnerable subjects)로 분류되는 아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고규정에는 아무런 윤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모자보건학회지도 여

〈표 2〉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의 학술지에 나타난 윤리기준

	헬싱키 선언	IRB	(서면) 동의 취득	비밀 및 익명성 보장	이해 상충 공시	윤리기준의 내용
대한간호학회지	0		0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인간호학회지	0		0			계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0		0			'대한간호학회지'와 동일
정신간호학회지			0			연구의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	0		0			'대한간호학회지'와 동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0		0			'대한간호학회지'와 동일
Asian Nursing Research					0	CONFLICT OF INTEREST POLICY: Authors are required to disclose commercial or similar relationships to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or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rticle being submitted. Sources of funding for the article should be acknowledged in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Affiliations of authors should include corporate appointments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the article, or otherwise bearing on the subject matter thereof. Other pertinent financial relationships, such as consultancies, stock ownership or other equity interests or patent-licensing arrangements, should be disclosed to the Editor-in-Chief in the cover letter at the time of submission. Such relationships may be disclosed in the Journal at the discretion of the Editor-in-Chief in footnotes appearing on the title page.
기초간호자연구학회지						
계 (%)	5 (50.0)	-	6 (60.6)	-	1 (10.0)	

〈표 3〉 기타 학술지에 나타난 윤리기준

	헬싱키 선언	IRB	(서면) 동의 취득	비밀및 익명성 보장	이해 상충 공시	윤리기준의 내용
임상간호연구 모자보건학회지				○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임상건강증진학회지 간호교육학회지 산업간호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		○			'대한간호학회지'와 동일
중양간호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		○			논문의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인은 필요 시 서면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 (%)	3 (33.3)	-	3 (33.3)	1 (5.3)	-	

성과 이동을 주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지 연구대상자의 비밀 또는 익명성 보장만을 윤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및 산업간호학회지 등에서도 아무런 윤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윤리적 기준별로는 동의취득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9개(47.4%)로 가장 많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헬싱키 선언 준수(8개, 42.1%)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지 및 산하 학회 학술지 10개 중 5개에서 헬싱키 선언준수와 동의취득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매우 일치하였다(표 2). 윤리적 기준 중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영문학술지 *Asian Nursing Research*에서만 언

급하고 있었다. 한편, 독립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없었다.

IV. 논의

연구자는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투고규정을 준수하게 되며, 따라서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윤리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⁷⁾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간호학연구가 주로 투고 또는 게재되는 간호학관련 학술지 19개를 선정하고, 각 학술잡지의 투고규정에 제시된 윤리적 기준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9개 학술잡지의 투고규정 중 종류에 관계

7) Amdur RJ & Biddle C. 앞의 책. 1997.

없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약 58%로, 이러한 결과는 10년전 정인숙 등⁸⁾이 4개 간호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아무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정인숙 등⁹⁾이 조사하였던 4개 학술지(기본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중 3개의 학술지에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취약한 연구대상자(vulnerable subject)로 간주되는 아동에 대한 연구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아동간호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아무런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주로 연구대상이 되는 임상간호연구나 중앙간호학회지, 그리고 생리적 측정을 포함하는 실험연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¹⁰⁾ 등의 투고규정에도 아무런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나타난 윤리기준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윤리기준으로 헬싱키선언의 준수와 동의취득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는 2006년에 발행하기 시작한 영문 학술지인 Asian Nursing Research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한 윤리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학회가 아닌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도 헬싱키선언의 준수와 동의 취득을 포함하되, 개인사생활 보호 및 기밀유지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다. 서로 관련 분

야의 학술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연구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슷한 학술지의 투고규정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헬싱키선언의 준수에 있어서는 단지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라고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헬싱키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대상자 보호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투고규정에 제시된 윤리기준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히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와 독립된 윤리위원회의 승인에 대한 기준이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해상충은 연구자가 어떤 관계때문에 과학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일차적인 이해(예로 연구대상자의 안녕,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와 관련된 전문가의 판단이 이차적 이해(예로 금전적 이득)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황을 의미한다.¹¹⁾ 가장 흔한 이해상충은 재정적 관계속에서 발생하며, 연구자가 상업적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이 밖에도 학문적 경쟁이나 열정으로 인해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¹²⁾ 생의학 연구에서는 펜실베니아대학의 유전자 전달(gene transfer)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던 연구대상자인 Jesse Gelsinger가 1999년에 사망한 사건 이후 연구윤리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¹³⁾ 2000년 헬싱키선언 5차 개정안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만약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이

8) 정인숙 등. 앞의 책. 1998.

9) 정인숙 등. 앞의 책. 1998.

10) 김주현, 최명애, 김윤경 등. 국내 주요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생물학적 측정법(Biological measurement)을 이용한 연구에 대한 분석. 대한간호자연과학회지 2006 ; 8(2) : 61-72

11) Thompson D.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N Engl J Med 1993 ; 329 : 573-576.

12) Dunn CM, Chadwick GL. 앞의 책. 2004 : 94.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Updated October 2007. Available at <http://www.icmje.org/>. Accessed on January 28, 2008.

13) Beardsley T. Gene therapy setback : a tragic death clouds the future of an innovative treatment method. Sci Am 2000 : 282 : 36-37. ; Stolberg SG. The biotech death of Jesse Gelsinger. New York Times magazine 28 Nov 1999.

를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이해상충은 다른 윤리적 기준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기준이며, 이로 인해 이번 조사대상이 된 투고규정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행된 Asian Nursing Research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독립된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윤리적 기준으로 1964년 헬싱키선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이후 미국 연구법(The National Research Act, 1974)에서도 IRB에 의한 연구계획서의 검토를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대상자를 보호하는 3가지 보호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¹⁵⁾ 미국의 경우 연방법¹⁶⁾에 의해 보건성(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기금을 받아서 행해지는 모든 유형의 인간 연구에 대해 독립된 IRB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기능에 대해서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연구 재원에 관계없이 인간 피험자가 포함되는 모든 연구에 대해 IRB의 검토를 포함한 연방 연구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¹⁷⁾이 시행되면서 임상시험에서의 IRB 승인이 본격적으로 규정화되었다. Amdur & Biddle¹⁸⁾이 102개의 영문으로 발간된 생의학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분석한 결과 47%에서 IRB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정인숙 등¹⁹⁾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의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 학회지 92개중 3개에서만 IRB 승인을 투고규정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시행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된 연구라 투고규정에 IRB 승인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6년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의 GCP 지침이 완성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적 표준화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IRB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IRB의 설치 및 운영은 의약품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병원 또는 의과대학에서 주로 의무화되었고,²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의학연구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IRB 승인을 포함하는 비율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간호학연구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에 IRB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간호연구자나 학술지 편집자 모두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IRB는 인간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계획서의 윤리성을 심사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녕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간호학 연구 실시 전 IRB 승인을 받은 절차가 필요하다. 간호학관련 학술지의 편집자는 각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IRB 승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고규정의 윤리적 기준 중 하나로 IRB 승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14)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J Int Bioethique 2004 ; 15(1) : 124-129.

15) Dunn CM & Chadwick GL. 앞의 책. 2004 : 37

16) DHHS.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45(Public Health) Part 46(Protection of human subjects). 2003. <http://www.hhs.gov/ohrp/humansubjects/guidance/45cfr46.htm>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1995.

18) Amdur RJ & Biddle C. 앞의 책. 1997.

19) 정인숙 등. 앞의 책. 1998.

20) 김옥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학회 창립총회 자료집, 2005.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학술지의 질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그 윤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윤리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10년 전에 실시하였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간호학관련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윤리기준이 포함된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조사대상 학술지의 약 반수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윤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윤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윤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지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고, 편집자가 연구자에게 윤리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며, IRB 승인이나 기타 피험자 동의 등 윤리적 지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²¹⁾ 간호학관련 학술지의 편집자를 대상으로 투고규정에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 간호학관련 학술지에서 거

의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일부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편집자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 관련 일부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만을 분석하였기에 실제 연구논문 평가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투고규정에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게재된 연구논문에서는 윤리적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투고규정에 제시된 윤리적 기준이 실제로 연구논문에서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E**

색인어 : 투고규정, 윤리기준, 간호학 학술지, 헬싱키 선언

21) Amdur RJ & Biddle C. 앞의 책, 1997.

Ethic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in the Publication Guidelines of Nursing Journals

JEONG Ihn-Sook*, UM Young-Rhan **, KIM Keum-Soon***

Background: Al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ncluding research done in the field of nursing, should satisfy appropriate scientific and ethical requirements. Medical journals that publish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can help to ensure that researchers do satisfy these requirements by explicitly listing them as preconditions of publication in the publication guidelines (“Instructions for Authors”).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xplicit ethic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in the publication guidelines of nursing journals.

Methods: The guidelines of 19 nursing journals were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required authors to a) comply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b) have their projects approved by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RB), c) obtain informed consent, d) protect subject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e) explicitly state any conflicts of interest.

Results: Twelve of the 19 (63.2%) journals included at least one of these ethical requirements in their publication guidelines. The most common requirement was the need to obtain informed consent, followed by the need to comply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None of journals mentioned the need to have research projects approved by an IRB.

Conclusion: While the publication guidelines of nursing journals have improved in recent years, there is a need for further explicit instructions to ensure that authors satisfy all ethical requirements in conducting research on human subjects. Further studies are recommended to determine if IRB approval should be a requirement for publication in nursing journals.

◉ **Keywords:** Publication guidelines, Instructions for authors, Nursing journals, Ethical requirements, Helsinki Declaration

*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